

원효학 국제학술 세미나 토론회

1994 元曉學國際學術會議
"오늘날 우리는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최: 대덕대학교총동원, 후원: 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의 사상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란 해답이 "오늘날 우리는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지난 18,19일 이틀간 타워호텔에서 열린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10명의 학자가 참가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틀간의 학술회의중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내용을 정리했다.

"21세기의 새로운 비전 제시"

원효의 사상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란 해답이 "오늘날 우리는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지난 18,19일 이틀간 타워호텔에서 열린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10명의 학자가 참가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틀간의 학술회의중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내용을 정리했다.

화쟁논리, 분별지 뛰어넘는 세계관

번안한목사(전 김리교신학대)는 원효의 일심(一心)이 개체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에 배치되는 궁극적 실재론이 아니라는 결론에 "화쟁(和諍)의 논리는 서양의 '일원적 다원주의'나 '다원적 다원주의'와 같은 이원론적 분별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말했다.

베르나르 포르코수(스페인포드대)는 원효의 삶이 당시 민중의 무의식적 상징의 표현물은 아닌가란 질문에 "신화적·역사적 이미지의 원효에서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역사와 신화 사이에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화두선은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또 서울대 이부영교수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에서 "화두(話頭)는 비합리적 의식의 상징물"이라고 지적하고, "화두선은 의식의 합리성을 깨뜨려 무의식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깊은 뜻을 터득케 하는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로버트 버스웰교수(UCLA)는 간화선과 사회심리학, 일심과 무의식의 관련성에 대해, "간화선은 마음의 안개를 걷어 위대한 일심에 이르게 하는 독특한 수행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선 수행과 심리학은 어떤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강삼매경론은 중국 선종의 뿌리

이들간 학술회의를 정리하면서, 이기영박사는 "원효라는 인간과 그의 사상의 위대성이 국제적으로, 또는 우리나라 인문학계에서 제대로 널리 이해되고 올바르게 평가받기에는 아직도 전도가 요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박사는 또 "원효의 사상은 모든 불전을 다 섭렵하고 깊이 사유하며 체계적으로 깨달은 일승(一乘)의 정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88년 제5차 해외한민족 회의에서 발표한 「원효사상은 21세기 세계를 향해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 6개 조항을 제시했다.

△화쟁의 공동체로서의 세계관과 인생관 △언기로서의 역사관, 공(空)·가(假)·중(中)의 현실인식 △법(法)·보(報)·화(化) 삼신설(三身說)에 입각한 우주관 △무소유, 보시의 경제윤리 △요익중생(緣益衆生)의 정치철학 △구일심원(歸一心源)의 교육 등이 그것.

이어서 이박사는 "중국선종의 뿌리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있다"고 주장하고, "〈금강삼매경론〉의 내용은 최초로 원효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금강삼매경론〉은 중국선종이 태동할 무렵에 불교의 핵심이 선삼매(禪三昧)에 있음을 확실하게 한 중대한 의의를 가진 문헌이었다"고 역설했다.

(김재경 기자)

경천사지 10층석탑 "실내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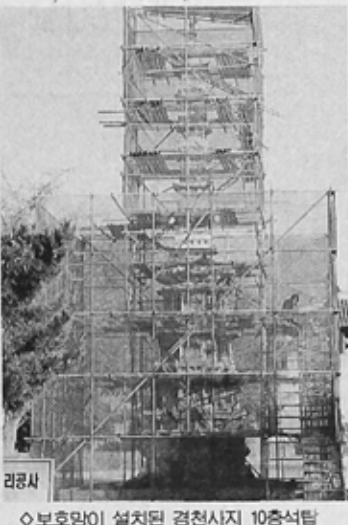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용산박물관으로 이전예정

부작용초래 가능성 ... 전문가 자문받아 추진해야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실내로 들어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보86호인 경천사지 10층석탑이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크게 훼손되고 있어 용산에 신축되는 박물관으로 옮겨 실내에 전시할 방침이다. 박물관의 이같은 방침은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손상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

최근 신축박물관·설계자문을 위해 내한한 이탈리아 로마대학의 벨란카교수는 경천사지 석탑을 관찰 "중화작용으로 인한 석재 표면의 균열현상등이 심하므로 실내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탑의 보존을 위한 철거이전 문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석탑을 갑자기 실내로 옮길 경우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존과학자들의 자문을 거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막이 설치된 경천사지 10층석탑

송림사 사리장치 등 전시

국립 대구박물관 12월초 개관

국립대구박물관이 지난 3일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초 개관을 목표로 마지막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이 지역 문화의 연구 보존 및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대구박물관은 대구시 황금동 범어공원내 총면적5백80평의 부지에 연면적 3천480평을 고고실과 미술실, 민속실의 등 기획전시실등 4개의 전시실에 각 국공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에 출어져 있는 이 지역 출토유물을 집중 전시하게 된다.

미술실은 대구지역에서 출토된 불상·사리장엄구 및 각종 미술공예품과 영남유학자의 유품 및 일관관련 유품을 전시하여 당시 사회상을 재조명 할 수 있도록 꾸렸다.

이중에는 8세기초 통일신라시대의 철골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장치(보물 325호)와 안동 옥동 출토 신라시대 금동반가사유상과 선산 봉안동 출토 삼국시대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184호), 영동 성내동 출토 통일신라시대 금동용두(金銅龍頭) 등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보물 「반아심경약소」 역경 추진

문화체육부에 의해 지난 10월 17일 보물 제 1211호로 지정된 소요산 자재암(주지 법타) 소장 「반아비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가 현대국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아어문학회'가 일선에 나서 현대국어로 번역할 이번 작업은 중세국어 연구의 일환으로 반아심경을 소장하고 있는 자재암을 방문, 사진에 담은 후 현대역어 번역작업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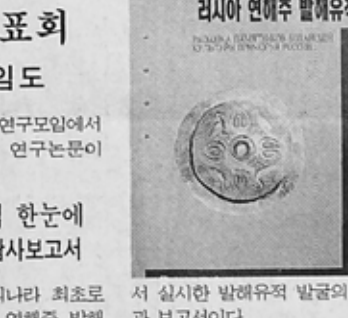
「종교와 환경」주제 발표회

3일 한국종교학회, 연구모임도

한국종교학회(회장 김희성)는 오는 12월3일 서강대 다산관 B102호에서 추계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종교와 환경」주제로 열려, 과신환교수(승실대)와 송향룡교수(성균관대)가 주제발표에 나서 「유교의 자연관」, 「도가의 자연관」을 각각 발표하고, 연구모임의 불교·인도종교분야에서는 박동기박사(동국대)와 양은용교수(원광대)가 「방편사상의 변천과정 소고」, 「왜란·호란 후 호국 승군의 통태」를, 문용식교수(동국대)와 이태영교수(동국대)가 「배단타에서의 무는 쟁」, 「힌두이즘의 인체관」을 각각 발표한다.

이밖에 유교·도교·그리스



서 실시한 발해유적 발굴의 결과 보고서이다.

월례 학술회 개최 한국동양철학회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송석규)는 지난 25일 대우재단빌딩 11층 강연실에서 제65회 월례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송재운교수가 「화엄의 심신설」, 성균관대 윤무학교수가 「한비자의 형명론(形名論)」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자주 보이는데...

문 저희 시아버님은 10년 전에,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아버님 장례후 49재를 두분 함께 올렸는데 최근 시가 쪽 친척 중에 시부모님이 자주 보인다고 다시 49재를 올린다고 합니다. 많이 편지 않아 문의합니다.

(부산지 금정구 서2동·김경이)

답 천도에는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도리를 몰라서 과거에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님네들이 도리를 알고 일체를 다 맡겨 놓고서 할 때 마음내는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한 단계는 일체 재물의 마음과 조상님 마음이 풀이 아닌 까닭에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이뤄지고 나고 드는 줄을 알아 따로 재를 지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천도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님이 이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셨다 합자라도 후손이 마음 도리를 알아 일체를 마음 지어 일임하고 나간다면 그대로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49재를 지낼 때 조상님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한자리 같이 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꿈지리에 보인 것은 그 분이 조상님의 중생적인 모습만 보고 참 근본인 부처님의 모습, 모습 아닌 그 모습을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령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인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2건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보지 못했다기 때문입니다. 참 수행자라면 조상님께 늘 감사하는 생각을 하되 자기와 더불어 해야 합니다.

육조스님의 법통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를 거쳐 달마·혜능에 이르는 법통이 때 우 응성하다가 다시 번잡해졌다고 봅니다. 스님께서는 육조의 밝은 법통이 미래에는 어떻게 전해져 가리라고 보시는지요.

(서울 중로구 신영동·허두필)

답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잘나잘나 돌아가는 자체가 나 아님이 없기에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닌 것이 부처님이란 말이요, 육조 혜능선사의 법통을 이어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지만 지금은 왜 이러하고 하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데도 사람들이 생각을 더 한번 기울여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속 한 가운데서 자기 자기를 알고, 깨우치고 하는 말을 그때 육조선사도 역시 말했었습니다. 역대 조상들도 다 그렇고, 부처님 보살님들이 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성인도 너 자신부터 알리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탓하지 그분들 탓입니까? 부처님 법이란 우리가 다 죽는다 해도 풀 한 포기만 살아있다면 법통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향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문 수행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얻어

지는 것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 많이 된 분은 더 그렇겠습디만, 아무튼 그래서 원하는 일 따위가 이뤄졌다고 할 때 다시 회향하는 공덕이 크다고 하는데 회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천시 북구 효성동·최정달형)

답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회향하는 데 무슨 회향을 또 할까요. 아니 법덕이 일어나도 회향이고, 말을 하고 끝이쳐도 회향이고, 모든 게 회향 아님이 없습니다. 시적이 있고 회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림살이에 묶여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볼 때에 사람들이 한 곳으로 나고 한 곳으로 드는 줄을 확고히 믿는다면 그대로 시시각각이 회향입니다.

물 한모금 마시고 밥 한술 떠 넣어도 더 붙어 먹고 더붙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치 않아도 깊은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이 일체중생, 일체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인 것입니다.

몸 아프고 직업도 마땅치 않아 괴로워

문 저는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직업도 마땅치 않아서 사는 게 참 고스스럽습

사례의 말씀

귀명삼보 하옵고
금번 대한불교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소승에게 뜻을 모아 적극성원해 주신 원로 대덕 큰스님과 도반스님 그리고 여러 스님들과 신도님,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로 드립니다.

소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크나큰 경책으로 받아들이고, 사부대중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뜻과 마음을 귀중하게 담아서 종단의 앞날을 위해 더욱더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한 종단이 불교발전과 종단중흥을 원만히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 유월탄 합장

『찰떡궁합』 - 쌀밥과 김치

꽃이 되는 우리 음식이야기/김치①

우리 조상들은 식품조리학의 천재였습니다. 쌀밥에 곁들인 영양분을 보충하고, 겨울철에도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고, 또 소화력을 촉진시켜주는 반찬을 개발했으니, 바로 김치가 그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쌀 밥과 김치를 먹고 한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한반도에 터를 잡았을 무렵에 동경한 쌀밥과 삼국시대 이전부터 먹기 시작한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을 돌림에 온 주식과 반찬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인의 배를 넉넉하게 채우는 따뜻한 쌀밥과 잘 익은 김치는, 또 그렇게 궁합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인데, 고기가 부족했던 우리는 단백질 섭취를 주로 곡류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곡류 단백질 속에는 인체 영양의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Lysine)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무와 깻잎 속에는 라이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김치를 먹으면 곡류 단백질의 결핍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김치에는 곡류를 잘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어 밥을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잘 되게 해줍니다. 김치 없이 밥을 먹으면 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김치에는 동물성인 것이 들어 있어 순식물성 음식인 쌀밥의 결핍을 여러 가지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 쌀밥에는 꼭 김치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

역사가 시작된 뒤로 이보다 좋은 소금은 없었습니다. 仁山 김일촌(1909~1992)이 개발한 산비의 소금 인산염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살아 있는 세계인 골든 소금을 현대나무통 속에 넣고 지리산 기슭 향토로 빚은 다음 송진물로 굳기를 이룬다. 마지막 아홉번째 가서는 1천도 이상 선풍에 녹여 낸 황소금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세요. 아홉 번 구운 인산염, 세 번 구운 인산염활용.

150년을 잇는 「身土不二」 건강 식재
仁山家 736-3171
「身土不二」 건강 상담/자료문의